

## 바쇼(芭蕉)

마쓰오바쇼는, 1644년에 이가노쿠니(伊賀國)에 태어났습니다.

이가(伊賀)는 지금의 미에켄우에노시(三重県上野市)입니다. 본명은 마쓰오소오보오(松尾宗房)라고 합니다. 에도(江戸)에 나와 하이쿠 시인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桃靑 도청」이라는 하이쿠의 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세경에 에도 굴지의 하이쿠의 대성이 됩니다. 그러나, 곧 대성을 그만두고 심천의 암자에 운둔생활을 하며, 하이쿠 자체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암자의 문인 이하(李下)가 보낸 「바쇼의 나무」가 심겨집니다.

그 이후로 그 암자는 바쇼암(芭蕉庵)이라고 불리게 되어, 「바쇼」를 배호(俳號)로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바쇼가, 바쇼암에서 읊은 유명한 구(句)로는 「古池や蛙飛び込む水の音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가 퐁덩 뛰어드는 물 소리를 표현한 구」가 있습니다. 바쇼는, 생애 몇번이고 방랑에 나섰습니다. 그 여정은 『野ざらし紀行』『鹿島紀行』『笈の小文』『更級紀行』『奥の細道』등 기행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후, 바쇼는 1694년에 오오사카(大阪)로 여행을 떠나, 그 곳에서 건강이 악화돼, 제자들에게 보는 가운데 12월12일(양력)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때는 50세. 세상을 떠나기 4일 전에, 병상에서 읊은 구 「旅に病んで夢は枯野をかけ廻る 여정에서 병들어 꿈은 메마른 들판을 맴돈다 라는 구」가 바쇼를 여행시인으로서 인상깊게 합니다.

## 하이쿠(俳句)와 일본의 리듬

하이쿠는 「5·7·5」의 음절로 만들어 집니다. 「5·7·5·7·7」로 읊히는 단가(短歌)에서 따온 리듬감으로, 일본의 시(詩)에 있어서 중요한 리듬입니다. 또, 계절을 표현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이쿠는, 바쇼가 살아있던 시대에는, 하이카이(俳諧)라고 불리어 졌습니다. 처음은, 몇명이 5·7·5의 장구(長句)로 7·7의 단구(短句)를 서로 이어서 순서대로 서로 읊었습니다. 바쇼시대부터 「5·7·5」만으로, 독립해서 읊게 되었습니다.

# 山寺芭蕉記念館 야마데라바쇼기념관



## 야마데라바쇼기념관

- 개관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
- 입장료** 일반 대인400엔, ~~고교생300엔~~ 소...중학생 200엔  
단체 (20명이상) 대인320엔, 고교생240엔, 소...중학생 160엔
- 휴관일** 일요일(경축일과 겹치는 경우는 그 다음날)/12월29일-1월3일



- 교통** JR仙山線 仙台역 (45분-75분) → 山寺역 (도보8분) → 바쇼기념관  
山形역 (15분-20분) → 山寺역 (도보8분) → 바쇼기념관
- 버스 山交버스 山寺(바쇼기념관앞)행 山形역앞 버스정류장 (45분) → 「바쇼기념관앞」 정차
- 자동차 야마가타자동차도 · 山形北IC (20분) → 바쇼기념관

〒999-3301 山形市大字山寺字南院4223  
야마가다시 오오아자 야마데라 아자 낭인4223  
TEL (023) 695-2221 FAX (023) 695-2552



노오쿄도우(納經堂)



니오우몬(仁王門)



야마데라(山寺)의 겨울

릿삿쿠지(立石寺)는 860년에, 지카쿠다이시(慈覺大師 엔인)에 의하여 열렸다고 전해지는, 히에이잔엔라쿠지(比叡山延曆寺)의 별당입니다. 산에는 많은 기암들이 우뚝 서있고, 그안에 산 밑 부분과 표고차 180미터 지점까지 사원이 자리잡고 있어, 일컫어 야마데라(山寺)라고 불립니다. 춘추동 계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 줍니다.

## 바쇼(芭蕉)와 야마가타의 여정

바쇼가, 문인 소라(曾良)를 동반하여 『오쿠노 호소미찌(奥の細道)』 여행에 나선 것은, 1689년이었습니다. 때는 바쇼 45세. 에도(현재 동경)를 5월16일에 출발, 동북지방을 돌고, 10월4일에 미노노쿠니(美濃國)오오카키(현, 기후현 오오카키시)에 이르는 2400km, 약 3개월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쇼가 야마가타의 야마데라(山寺)에 도착한 것은, 7월13일의 저녁때였습니다. 麓の宿(후토토노 야도)에 들어 가서 立石寺(릿샤쿠지) 산에 오릅니다. 여기서 착상을 얻은 구(句)를 후일 완성시킨 것입니다만, 「閑かさや岩にしみ入る蟬の声 고요함과 바위에 스미는 매미소리」입니다.

그 외 『오쿠노 호소미찌』의 여정에서는 「五月雨をあつめて早し最上川 장마비로 물이 분 모가미강의 흐름이 빨라진 모양을 노래함」「荒海や佐渡によこたふ天河 육지에서 본 파도치는 바다와 사도섬이 길게 이어진 은하수 와 같음을 노래함」 등의 명구를 읊었습니다.

바쇼는, 하이쿠(俳句)를 『오쿠노 호소미찌』 여행을 통해서 추구하여, 문학으로 인정받을 만큼 문학성을 높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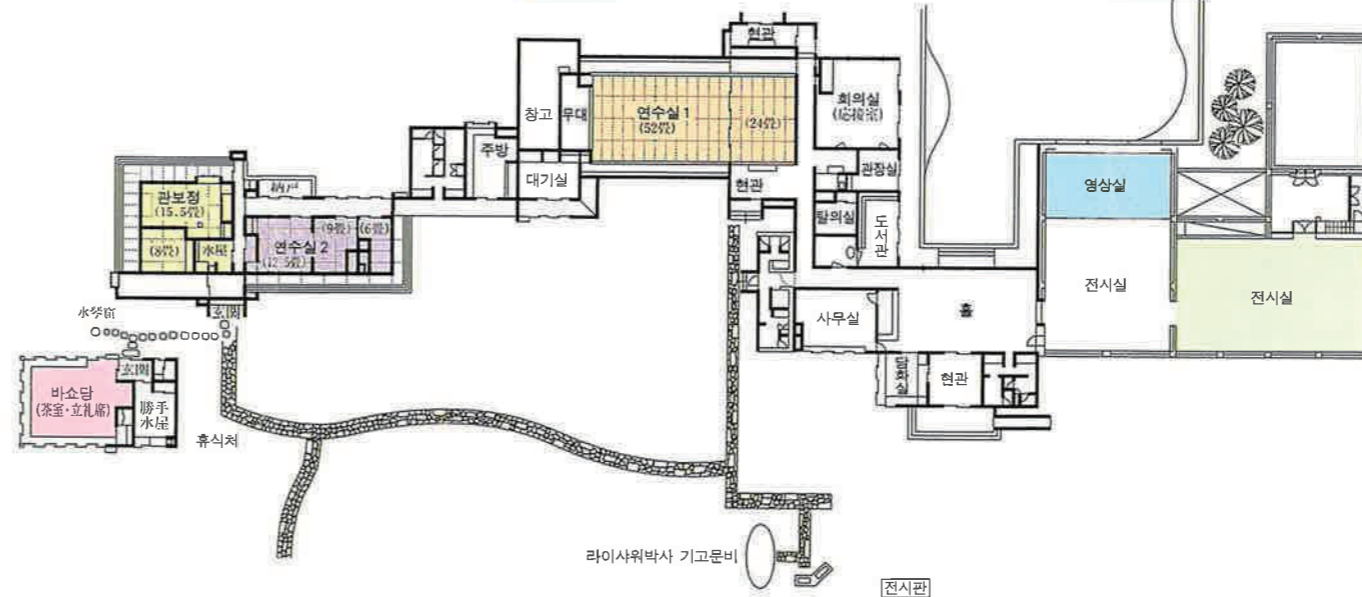
연수실1



영상실



상설전시실



라이사워박사 기고문비

전시관



연수실2

## 영화상영 안내

전시실의 영상코너에서는, 하이쿠의 대가 마쓰오바쇼(松尾芭蕉)를 해설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어판만 있음)

※전시에 협편상 상영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쿠노 호소미찌 백대의 과제」  
「おくの細道」

주연·요네쿠라 마사카네 (40분)  
야마가타로를 중심으로 『오쿠노호소미찌』를 돌고, 하이쿠의 대가·바쇼가 지향했던 것을 찾습니다.



「바쇼의 전달 표백의 가인 西行」  
「漂白の歌人 西行」

주연·사또우케이 (24분)  
야마가타로를 중심으로 『오쿠노호소미찌』를 돌고, 하이쿠의 대가·바쇼가 지향했던 것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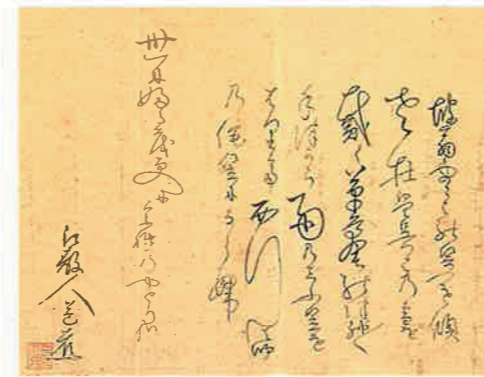
## [상영시간]

- 「おくの細道」 9:10
- 「漂白の歌人 西行」 9:50
- 「おくの細道」 10:20
- 「漂白の歌人 西行」 11:00
- 「おくの細道」 11:30
- 「漂白の歌人 西行」 12:10
- 「おくの細道」 12:40
- 「漂白の歌人 西行」 1:20
- 「おくの細道」 1:50
- 「漂白の歌人 西行」 2:30
- 「おくの細道」 3:00
- 「おくの細道」 3:42

※그 외, 홀의 모니터·TV에서는 「바쇼의 생애」 등의 단편 방송 <약7분>을 수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부 바쇼초상) 마쓰오바쇼 씀 본관소장



「요니후루모」 구문회지 마쓰오바쇼 씀

야마데라바쇼기념관은 1989년에 개관했습니다. 주로 하이쿠시인·마쓰오바쇼와 문인의 작품을 수장·전시하고 있습니다. 수장품에는 그 외에도, 카리노파회화(狩野派絵画) 미술자료, 현대일 본화등도 있습니다. 또, 다실·연수실이 있어, 다실에서는 말차(抹茶)를 드실 수 있으므로 문의해 주십시오.



바쇼당(다실, 입찰석)